

공공신학으로 한국 시민운동 읽기*

최경석 (남서울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다양한 공공신학의 입장

1. 미국의 공공신학-스택하우스와 하우어워스(S. Hauerwas)를 중심으로
2. 독일의 공공신학-후버를 중심으로
3. 한국의 공공신학-기독교윤리학자들을 중심으로
4.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공공신학-책임사회 구상을 중심으로

III. 한국 시민운동

1. 한국 사회운동의 새로운 흐름으로서의 시민운동의 등장
2. 한국 시민운동의 제도화와 탈제도화 현상
3. 탈제도화 현상으로서 2008년 촛불시위

IV. 공공신학으로 한국 시민운동 읽기

V. 나가는 말

* 본 논문은 2011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2012년 11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열린 2012년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같은 제목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Civil Movement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s of Public Theology

Choi, Kyung-Suk

Many theologians in Korea are interested in the 'public theology'. The rationale behind this would be a number of national elections were held in Europe, USA, and Korea and so many civic movements have been actively worked by many civic organizations. In this context, it would be very useful to review the political issues from the perspectives of public theology.

For this, this paper discusses the political issues from the perspectives of public theologies from the USA(M. Stackhouse and S. Hauerwas), Germany(W. Huber) and Korea.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vision of the 'responsible society', which set up at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s 1st assembly meeting held in Amsterdam in 1948.

In the view of the public theology, this study dealt with the civil movements in Korea. During the Roh Mu-Hyun administration, people have experienc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ivil movement. However, the situation has been dramatically changed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civil movement were progressed. In particular, it can be argued that Candle Demonstration in 2008 becam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to facilitate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civil movements.

Given the public theology, the researcher argues that church should suppor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ivil movement as a middleman in the civil societ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church need to publish guidance books for political issues which is similar to the practices of churches in German.

Key words: public theology, church, civil movement, institutionalization, political issue.

I. 들어가는 말

공공신학이 왜 주목을 받는가? 왜 다시 공공신학인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학적 작업 내지는 사회윤리적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신학은 계속해서 신학자들의 입에서 회자되어야 할 큰 틀에서의 하나의 담론이다.¹⁾ 아울러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장은 “삶의 현장인 공적인 영역”²⁾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공공신학의 정의에 대해서 스택하우스(M. Stackhous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공신학은 “공적인 논쟁들이나, 문화, 사회, 과학기술, 경제, 정치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며, 또한 비기독교적 전통들이나 사회과학, 역사과학들과 더불어 비판적인 대화를 하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다.³⁾ 후버(W. Huber)에 따르면, “공공신학이란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질문과 이의 제도적 형성화를 신학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생활세계를 책임적 형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 추구하는 신학적 의도이다.”⁴⁾

공공신학의 정의를 주목하면서, 올해 2012년의 전 세계적인 이슈는 정치적 사안이라는 데 우리는 의견을 모을 수 있다. 세계 50여 개의 나라에서 선거를 치렀거나 치르고 있다. 먼저 유럽의 총선은 최근 국가 재정의 위기의 근원지라 일컬어지는 남유럽에서 진행되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1) 김형민, 「공공신학의 과제로서 인권」,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124.

2) 위의 책, 7.

3) 임성빈, 「맥스 스택하우스의 신학윤리사상과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 위의 책, 57에서 재인용.

4) 김형민, 위의 글, 127에서 재인용.

있으며 한국의 경우 12월에 대선이 진행된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에 시민운동의 역량이 발휘되기도 했다. 한국의 예를 들면, 2002년 낙천과 낙선운동을 통해 시민운동의 영향이 지대했다. 그 후 대선에서 정책제언, 감시활동 등이 지속되어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민운동은 정부의 제도 속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일어났다. 특정 정치세력이나 시민운동 세력이 주도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뤄낸 2008년의 촛불시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신학에서 정치적 사안들을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공공신학이 한국 신학계에 회자된 후, 이를 적용한 논문들은 다수였다. 본 논문은 시민운동과 적극적 연대를 모색하려는 시도로서 공공신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 2장에서는 공공신학의 다양한 담론이 정리될 것이다.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에서 공공신학의 입장이 거론된 후, 에큐메니칼 운동, 특히 사회윤리적 측면⁵⁾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임사회 구상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논의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한국 시민운동의 발전과 탈제도화 되는 한국 시민운동의 예로 촛불시위가 언급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공공신학의 시각으로 한국 시민운동을 평가할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의 공공신학을 토대로 교회가 시민운동에 참여해야하는 근거가, 독일의 공공신학을 중심으로 실천적 측면이 제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책임사회 구상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참여하는 시민운동의 모델을 설정하는 것을 한국교회의 하나의 과제로 제안할 것이다.

5) 사회윤리적 담론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높다. Jähnichen, T., *Vom Industrieuntertan zum Industriebürger, Der soziale Protestantismus und die Entwicklung der Mitbestimmung (1848-1955)*, (Bochum: 1993), 284.

II. 다양한 공공신학의 입장

공공신학은 사회, 정치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사실 공공신학라고 명명되었을 때, 이미 그 이름 자체에 입장의 다양성이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장에서는 공공신학의 다양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입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나름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려하고 숙고하는 측면에서 에 커뮤니칼 운동에서 공공신학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공공신학-스택하우스와 하우어워스(S. Hauerwas)를 중심으로

미국에서의 공공신학은 미국 신학에서 ‘수정주의’라 일컬어지는 시카고 학파의 입장에서 발달했다.⁶⁾ 이들의 입장은 신학이 어느 한 특정한 분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고 이해할 수 있는 신학이 되는 것이다.⁷⁾ 이에 반해서 ‘탈자유주의적 신학’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비기독교인들에게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예일학파의 공공신학자들도 있다.⁸⁾

전자의 경우는 스택하우스가 대표적인 입장이고, 후자는 하우어워스라 말할 수 있다. 이 둘의 신학에 대한 입장은 이미 한국에 많이 소개된 바가 있어 여기에서는 이 둘의 교회론적 관점에서 공공신학을 짧게 언급하고자 한다.⁹⁾

6) 수정주의는 신정통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과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경험적 차원을 포괄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간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와의 비판적 상관관계”를 핵심 주장으로 삼는다. 노영상,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에 대한 논구」, 세세대 연구소, 앞의 책, 64-65.

7) 위의 글, 64.

8) 위의 글, 67.

문시영은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을 교회론적 입장에서 세 가지로 정리한다. 먼저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시민사회의 한 복판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윤리적 과제에 대한 통찰을 발견하고 실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시도”¹⁰⁾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 공공의 영역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스택하우스는 이렇게 신앙의 공적인 면을 강조하며, 신앙과 신학은 내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말한다.¹¹⁾ 다음으로 그는 청지기로서 삶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넓은 의미에서 청지기로 이해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정치와 경제적 삶에서의 청지기 역할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한다.¹²⁾ 마지막으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소명과 언약의 윤리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다.¹³⁾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을 짧게 정리한다면,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청지기적 사명을 공적인 영역에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¹⁴⁾

스택하우스의 교회론의 입장과는 달리 하우어워스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주장한다.¹⁵⁾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회윤리를 제시하기 보다

9) 스택하우스와 하우어워스에 대한 공공신학의 입장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공공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차 자료를 인용하기보다는 이미 한국에 소개된 2차 자료를 의거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문시영의 2차 자료를 집중적으로 참고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스택하우스와 하우어워스의 공공신학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많은 글들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의 두 명의 공공신학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0) 문시영,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담긴 윤리적 통찰」,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앞의 책, 97.

11) 위의 글, 100.

12) 위의 글, 101-102.

13) 위의 글, 103.

14) 위의 글, 106.

는 교회 자체가 사회윤리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속정치와 결탁을 방지하고 정치적 자유주의로 동화됨을 방지하기 위해서다.¹⁶⁾ 이른바 “교회됨”을 위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덕성을 회복하고, 예수의 내러티브가 곧 윤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덕성이 풍부한 교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시민사회의 모범이 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정신을 통한 비폭력 평화를 강조하는 것이다.¹⁷⁾

이렇게 볼 때, 문시영의 지적대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교회 밖으로의 윤리”를 강조한다면, 하우어워스의 신학은 “교회 안에서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¹⁸⁾

2. 독일의 공공신학-후버를 중심으로

볼프강 후버는 독일에서 공공신학의 근간을 만든 신학자로 평가된다.¹⁹⁾ 후버는 그의 유명하고 방대한 분량의 저서인 『교회와 공공성』(Kirche und Öffentlichkeit)에서 교회론을 근거로 교회의 정치적 책임을 조망하면서 교회의 공공성을 언급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 저서보

15) 위의 글, 97.

16) 문시영, 「하우어워스의 윤리에서 복음과 교회」, 한국기독교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21집, 2011, 14.

17) 문시영, 「S.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 2010, 182.

18) 위의 글, 184. 김현수는 스택하우스의 신학은 공공신학으로, 하우어워스의 신학은 교회윤리로 말하고 있다.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문화 속에 있는 공동의 삶의 주요 분야들을 해석해주고 발전가능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지탱을 위한 윤리적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공적 담론의 하나”이고,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는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김현수, 스텔리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 비판적 읽기, 『기독교사회윤리』, 제21집, 34, 모든 인용은 위의 글에서 재인용.

19) 한국에서 후버의 공공신학에 대한 글로서, 김형민, 위의 글, 특히 125-128, 고덕신, 「유럽의 공공신학」,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앞의 책, 특히 48-53, 그리고 손규태, 『하나님 나라와 공공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85-198.

다는 『개신교 사회사전』(Evangelisches Soziallexikon)에 실려 있는 후버의 「공공성과 교회」(Öffentlichkeit und Kirche)를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제목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후버의 공공성의 신학적 근거는 교회론이다. 후버는 먼저 성서적 근거 속에서 교회의 공공성의 임무를 제시하고, 선교의 측면에서 교회의 공공적 행동을 언급한다.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임무에 대한 구약 성서적 전통으로 예언자들의 공적인 활동이 제시될 수 있다. 신약 성서적 전통 속에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본다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시키는 것에서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마태복음 28장 18-20절을 본다면, 선교의 임무 속에서 이미 교회의 공적인 활동의 특성이 표현된다. 기독교의 선교적 측면에서 교회의 확장은 광범위하게 공공성과 연결된다. 후버에 따르면 공공성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공공성의 영역은 공간적으로는 우주 전체를, 시간적으로는 세상의 영원까지를 포함한다.²⁰⁾ 또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공적인 의사소통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행위는 교회 내부에 머무를 수 없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적인 조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공적인 효과의 중요한 잣대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공적인 행동의 기본노선은 보다 나은 정의를 위한 노력과 사랑의 문화를 구축하는 노력이다.²¹⁾

후버는 성서적이고 선교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공공성의 근거를 제시한 후, 다원화된 오늘날의 사회현상에서 교회가 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네 가지 영역을 묘사한다.²²⁾ 먼저 교회가 진리의 문제들에 대한 의사소통의

20) Huber, W., *Öffentlichkeit und Kirche*, Honecker, M. (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2001), 1169.

21) 위의 글, 1170.

장을 여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진리의 존중을 위해서 국가의 기능이 필요하다. 즉 국가는 진리 추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교회는 다원성이 형성되는 데 이바지할 준비를 하면서 국가가 진리 인식에 대한 특정한 형태들을 옹호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국가 기관이 다양성과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²³⁾ 두 번째로 교회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동의 이익 추구하고 요구를 위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런 시민사회와 의사소통을 위해서 백서와 같은 문서들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⁴⁾ 세 번째로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교회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이익은 경제활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필요성과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 교회에게 있어 중요하다.²⁵⁾ 마지막 실현영역은 문화적 의사소통의 영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공공성의 임무는 그래서 공공성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다.”²⁶⁾

한 걸음 더 나아가 후버는 교회를 시민사회의 중재적 기구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교회의 임무를 설교와 목회적 돌봄, 봉사와 선교로 규정하고 각각에 상응하는 교회의 중재적인 기능을 제시한다. 그 기능은 세 가지다. 먼저는 교회의 교육의 기능으로, 교회의 교육은 교회 자신으로 방향을 잡는 것을 넘어서 공적인 교육의 본질과 연관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22) 후버는 독일개신교에서(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이하 EKD) 발행한 백서(Denkschrift)들을 예로 들면서 교회의 공공성의 실현영역을 제시한다.

23) 위의 글, 1172. 여기에 대한 백서는 Die Demokratiedenkschrift der EKD von 1985.

24) 위의 글. 여기에 대한 EKD 문서는 Das gemeinsame Wort der Kirchen zu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Lage von 1997.

25) 위의 글, 1173. 여기에 대한 EKD 문서는 Die Denkschrift der EKD, Gemeinwohl und Eigennutz von 1991.

26) 위의 글.

교회는 교회의 정치적 책임, 즉 정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과 평화와 생대를 유지하는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은 사회 속에서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정착되고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²⁷⁾

3. 한국의 공공신학-기독교윤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스택하우스와 하우어워스로 대표되는 미국의 공공신학은 한국에 공공신학을 뿌리내리게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공공신학은 신학자 자신들의 학문적 성향에 따라서 스택하우스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하우어워스를 옹호하는 사람들로 나뉠 수 있다. 또한 독일의 공공신학을 고려할 때, 후버의 공공신학에 대한 비판 또는 수용하는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신학자들의 공공신학의 입장을 정리한다.²⁸⁾

공공신학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기는 아마도 2007년 이후로 봐야 할 것이다.²⁹⁾ 공공신학을 한국에 소개하는 데 앞장 선 노영상은 한국 신학계에 공공신학의 담론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평가된다.³⁰⁾ 그는 공공신학을 한국교회에 적용함에 있어 기독교인의 신앙이 공적 영역으로 지평을 넓히기 위한 해석학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의 “기독교윤리로서 공적 윤리에 대한 방법론”³¹⁾은 이른바 “통시적 방법”과 “공시적 방법”을 통

27) 위의 글.

28)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공공신학자들의 입장들로서 윤리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연구 자료의 범위에서 학위논문을 피하고 소논문들 중심으로 전개할 것을 밝힌다. 아울러 이들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나 해석은 되도록 자제하며, 이들의 입장만을 논의할 것을 밝힌다.

29) 2007년 10월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는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를 한국으로 초대했다. 그 때의 강연과 한국의 신학자들이 공공신학을 소개하면서 공공신학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30) 노영상,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에 대한 논구」, 앞의 책, 64-81. 동저자, 「공공신학의 신학적 의의와 윤리적 과제」, 앞의 책, 11-37.

합하는 방법이다. 이를 테면, 어느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후, 그 사회문제를 윤리적으로 검토함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즉 종교인, 학문의 전문가 집단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공시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³²⁾

임성빈은 스택하우스의 입장에서 한국 교회로 하여금 공공신학에로의 응답을 요구한다. 그에 따르면, 복음과 사회적 책무는 서로 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을 담지하면서 “공공적 증언의 주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공공신학함”이 존재한다.³³⁾ 임성빈은 신학적 견해와 사회적 해석이 이미 다원화된 한국사회에서 공공신학이 가지는 과제를 제시한다. 그것은 지속적인 자기 점검과 비판 속에서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에게 포용성을 담지할 것과 “획일적 공공신학”³⁴⁾을 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임성빈은 한국교회에 “신앙의 실존적 차원과 고백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을 통전적으로 아우르는 신학함”³⁵⁾을 제안한다.

구미정은 여성신학과 공공신학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안과 밖을 구분하여 이원론적 사고의 특징을 가진 하우어워스의 네러티브 윤리보다는 오히려 인간관을 고려할 때, 여성신학과 건설적인 담론을 형성시킬 수 있는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을 옹호한다.³⁶⁾ 구미정은 스택하우스의 타자성의 개념이 “여성=타자”라는 개념과 통전적으로 상응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른바 “패미니스트 공공신학”³⁷⁾을 제안한다. 구미정은 공공신학을

31) 노영상, 「공공신학의 신학적 의의와 윤리적 과제」, 위의 책, 29.

32) 노영상의 이른바 통합의 방법론을 위해서는 앞의 글, 30-33을 참조하라.

33) 모든 인용은 임성빈, 「맥스 스택하우스의 신학윤리사상과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 세세대 연구소, 앞의 책, 61.

34) 위의 글, 62.

35) 위의 글.

36) 구미정, 「여성신학에서 본 공공신학의 과제」,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앞의 책, 103이하.

37) 위의 글, 110.

여성신학이 “타자화되지 않고 공적 봉사의 책무”를 수행할 조력자로 이해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미정은 여성신학은 공공신학에게 공적 영역에서 소외된 많은 타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회적 길잡이를 제시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공공신학과 여성신학 사이의 “호혜적 파트너십”을 제안한다.³⁸⁾

성석환은 “공공신학의 자리가 교회나 기독교 내부가 아니라”³⁹⁾ 스택하우스의 입장을 따라서 공공신학의 실천성을 강조한다. 실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공공신학이 이바지해야 할 것은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이다.⁴⁰⁾ 이런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교회의 문화적 역할을 제시한다. 즉, 교회는 우선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콘텐츠를 지역공동체에 적극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공공신학의 실천성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⁴¹⁾

문시영은 스택하우스와 하우어워스의 공공신학을 순차적으로 연구하면서 이 두 신학자들의 공공신학을 비판적 견지에서 서로 수용하여 상호 보완하는 상관성을 옹호한다. 그러나 엄격히 해석하자면 하우어워스의 의견에 가깝다.⁴²⁾ 왜냐하면 그는 “시민사회의 한 복판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교회의 윤리적 갱신과 성숙”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교회 자체

38) 모든 인용은 위의 글, 115.

39) 성석환, 「공공신학의 문화적 실천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77집, 167.

40) 위의 글, 180.

41) 위의 글, 178.

42) 여기에 대한 근거로 문시영의 최근의 연구동향이 제시될 수 있는 그는 최근에 하우어워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의 하우어워스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로서, 문시영, 「S.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에서의 사회윤리」, 앞의 책, 동저자, 「하우어워스의 윤리에서 복음과 윤리」, 앞의 책, 동저자,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비추어본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79집, 2012, 동저자, 「하우어워스와 ‘덕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3집, 2012.

로 윤리가 된다면 시민사회에서의 질타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⁴³⁾

김형민은 공공신학을 정치신학과 포스트모던적 사고에 대한 신학적 대안의 모색으로 보고 있다. 공공신학은 교회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정치신학이 외치는 교회와 사회에 대한 맹목적 비판보다는 나은 것이며, 포스트모던적 사고에서 중요시하는 개인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⁴⁴⁾ 김형민은 공공신학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인권을 문제를 언급하며 후버의 공공성과 스택하우스의 인권이해를 소개한다.⁴⁵⁾ 김형민은 독일과 미국의 공공신학의 접목을 인권이해에서 찾는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후버의 제자인 뢰겔레(W. Vögele)의 인권이해를 소개하면서 뢰겔레의 그것이 스택하우스와 연관되었음을 언급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공공신학의 연결 속에서 한국 신학자들의 공공신학의 입장이 언급되었다. 김형민은 인권이해에서 독일과 미국의 공공신학의 연결고리를 제시했다. 독일의 공공신학을 견지하면서, 특히 후버의 공공성의 연장 속에서 한국 신학자들의 입장을 정리해보기로 한다.⁴⁶⁾

43) 문시영의 주장을 더 들어보자. “예수 내러티브, 평화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하우어워스의 공동체적 윤리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시민사회의 문제들에 간섭하고 참여하기보다 교회부터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교회 없는 기독교 윤리는 불가능하다.” 문시영,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 개념과 사회윤리적 특성」,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앞의 책, 177.

44) 김형민, 앞의 글, 120.

45) 스택하우스는 인권을 만인이 가진 보편적 개념으로, 종교나 신학적 근거에서 나온 개념으로 이해한다. 스택하우스의 인권이해를 위한 방법론은 역사적인 방법론, 문화적 방법론, 가치론적 방법론 등을 제시하고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거룩하고 절대적인 것을 탐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을 거룩하고 절대적인 것을 확인한 후에 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택하우스의 인권이해의 기독교 윤리적 근거는 생명과 창조에 대한 성서적 관점이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 존재로서 살아야 하며, 타락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엄성을 부여받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임무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스택하우스는 주장한다. 위의 글, 131. 또한 역사적 관점에서 인권의 담론 속에서 자연법의 전통, 즉 18세기 이후부터 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의 발전된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스택하우스는 강조한다. 위의 글, 134.

고덕신은 유럽의 공공신학을, 특히 공공성을 철학적 입장에서 “정당한 담론의 장”⁴⁷⁾으로서 이해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 Habermas)의 공공성의 개념을, 하버마스가 제시한 공공성에 대한 “신학적 응답”⁴⁸⁾으로서 후버의 공공신학을 소개한다. 고덕신은 후버의 공공신학을 거대 담론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면서 결국 제1세계가 추구한 정치신학으로 규정한다.⁴⁹⁾ 고덕신은 공공신학의 필연성을 인정하지만, 공론장에서 합의될 수 없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구형 공공신학의 수정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제3세계의 신학인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을 견지한 “영성과 민중성 그리고 지구적 연대성”⁵⁰⁾의 고려다.

손규태는 후버의 공공신학과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진다. 그는 후버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세계적 차원의 변동을 설명하기에 낡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교회도 하나의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는 교회 자체를 확장하는 선교적 사명을 벗어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즉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공공신학의 목표로 제시한다.⁵¹⁾ 손규태는 아울러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을 “현대판 제국신학의 전형이거나 자본주의적 신학의 전형”⁵²⁾이라고 비판하며 공공신학이 경제적 지구화 속에서 등장한 화폐권력에 맞서 “소비적 대중

46) 유럽의 공공신학에 대한 더욱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가 가진 학문의 역량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북부유럽의 전통에서 공공신학의 논의를 소개하거나 발전시킬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기를 바라며, 필자의 연구범위가 독일신학에만 국한됨을 먼저 밝힌다.

47) 고덕신, 앞의 글, 43.

48) 위의 글, 42.

49) 위의 글, 60.

50) 위의 글, 64.

51) 손규태, 앞의 책, 198.

52) 위의 책, 201.

을 비판적 대중⁵³⁾으로 다시 태어날 방안들을 추구할 이론을 제시해줄기를 기대한다.

4.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공공신학-책임사회 구상을 중심으로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회의의 총회의 핵심은 책임사회 구상이다. 책임사회 구상은 올드햄(J. H. Oldham)에 의해 구상되었으며 그 이론적 근거는 이른바 “중간공리”다. 올드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서 나타나는 절대적인 구원의 계획과 시대와 상황이 가지는 상대적인 한계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매개시킬 방법론을 찾았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한계성을 단순히 부정하지 않고,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빛을 통과하여 책임 있게 변혁하는 것이다.⁵⁴⁾

“중간공리”를 비셔트 후프트(W. A. Vissert Hoof)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하자면, 먼저 “교회가 사회적 위기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가장 진지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교회가 사회 속에서 증인이 되고자 할 경우, 이들이 도움으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본문제들을 규정”하고, “이 문제들에게 대해서 간학문적 고찰을 장려하고 특히 신학자들과 평신도들 간의 대화를 장려”하고 “그 결과들을 연구와 그와 상응한 행동을 위해서 교회에 추천”하는 것이다.⁵⁵⁾ 이렇게 볼 때, “중간공리”는 공공신학과 조응한다고 볼 수 있다.

“중간공리”의 방법론에서 도출된 책임사회 구상이 밝히는 핵심적인 내

53) 위의 책, 204.

54) 올드햄의 중간공리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H.-J. Kosmahl, *Ethik in Ökumene und Kirche: Das Problem der 'Mittleren Axiome' bei J. H. Oldham und der christlichen Sozialethik*, (Göttingen, 1970), 55-58 참조.

55) 모든 인용은 Vissert Hoof, W. A., *Oldham's Method in Abrecht's Hand, the ecumenical review*, N. 1/1985, Vol. 37, 66.

용은 경제정의의 실현함에 있어 인간은 정치와 경제적 목적에 종속될 수 없다는 것, 모든 사회의 동등한 자기실현의 권리를 보장 받는다 것, 그리고 국민들은 법질서와 정부를 조절할 자유와 비판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체할 자유도 가진다는 것이다.⁵⁶⁾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은 경제정의와 자기실현의 보장을 받는 사회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한다.

책임사회 구상은 이 세상에서 이상적 사회를 구현하는 어떤 사회적 또는 정치적 체제가 아니라 단지 기존의 사회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다.⁵⁷⁾ 왜냐하면 책임사회 구상은 인간들이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실현가능한 궁극이전의 성격과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책임사회 구상을 모든 사회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발전시킨 사람은 벤트란트(K. D. Wendland)다. 그는 책임사회 구상 속에서 사회질서가 기독교화 되는 것을 거부하고 단지 하나님 나라의 전 단계의 하나로 인식하면서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사회라고 말한다.⁵⁸⁾

벤트란트에 따르면,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열린 책임사회 구상을 위한 세 가지의 기본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웃과 사회에 책임”을 갖게 하는 자연법적 성격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⁵⁹⁾ 두 번째로는 사회제도를 기독교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기독교 정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독교 사회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⁶⁰⁾ 마치

56) Visser't Hooft, W. A., *Die erste Vollversammlung des Oekumenischen Rates der Kirche: Die Unordnung der Welt und Gottes Heilsplan*, Bd. 5, (Genf, 1948), 99-102.

57) 이형기 엮음, 『세계교회협의회 역사총회 종합보고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118.

58) Wendland, H.-D., *Die Kirche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Entscheidungsfrage für kirchliche Handeln im Zeitalter der Massenwelt*, (Hamburg, 1958), 2. Aufl., 129.

59) 위의 책.

60) 위의 책, 130. 이런 역설적인 입장에서 벤트란트는 교회가 인간과 인간을 위한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인간과 사회에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Wendland, H.-D., *Die Kirche in der revolutionären Gesellschaft*, (Gütersloh, 1967), 114.

막으로는 정치적 권력가들과 경제적 권력가들이 사회에 책임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책임사회 구상에 기반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정의롭고 참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Just, Participatory and Sustainable Society, 이하 JPSS) 과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이하 JPIC)의 패러다임으로 변천하면서도 여전히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에큐메니칼 운동은 JPSS의 패러다임에서 경제 민주주의의 실현 이라든지 노동문제는 민주주의적 체제 속에서 참여를 통한 정의의 실현을 간구하였으며, JPIC의 패러다임에서 생태계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정의, 평화, 피조물의 보전을 위한 창조 책임을 위해서 이른바 공의회적 과정으로 교회들을 초청했다.

이렇게 볼 때, 에큐메니칼 운동의 깊은 곳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책임사회 구상은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시민공동체에게도 유효하며 그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정의가 “공공질서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유가 되고, 정치 권력자와 경제 권력자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권력 행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사회”⁶¹⁾이다. 중요한 것은 책임사회 구상의 규준에 따라서 오늘날에 실현 가능하고 제도화되어 만민들에게 통용될 준칙을 설정하는 것이다.

III. 한국 시민운동

1. 한국 사회운동의 새로운 흐름으로서의 시민운동의 등장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위치한다. 사회적 관계와 구조적 측면

61) Visser't Hooft, W. A., 앞의 책, 104.

에서 볼 때, 시민사회는 현실정치나 국가의 공권력과 차별되고 자기의 이해관계의 추구나 시장의 명령과는 구별되는 이른바 “회색영역” 또는 제3섹터라고 말할 수 있다.⁶²⁾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민사회는 정치부문과 경제부문의 공적이고 사적인 자율성을 유지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영역에 결정당하는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다.⁶³⁾

이런 시민사회에서 사회운동은 적극적인 정치형태 중 하나이다. 역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제도정치는 민주절차에 의해 잘 운영되는 제도정치에서 강력한 권위주의적 또는 독재적 정치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제도정치의 다양성은 시장이나 시민사회에 억압과 통제의 수단을 통해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나 시민사회는 이런 제도정치에 도전과 저항을 수행한다. 사회운동은 제도정치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위해 집단적으로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개인, 집단 또는 조직들 간에 형성되는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⁶⁴⁾

서구 사회는 1960년대 후반을 변환점으로 하여 시장을 중심으로 계급모순을 타파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려는 노동운동, 이른바 “구사회운동”에서 환경, 여성, 평화, 교통, 건강 등 시민사회의 일상과 관련된 운동, 이른바 “신사회운동”으로 변화되었다.⁶⁵⁾ 한국에서의 사회운동은 해방 이

62) 김경동, 「시민사회와 정치과정」, 박재창 엮음, 『위기의 한국시민사회』, (서울: 아르케 2009), 20-21.

63) 위의 글.

64) 조대엽, 『한국의 시민운동-저항과 참여의 동학』, (서울: 나남출판, 1999), 114.

65) 신사회운동은 1960년대 후반 서구 민주주의국가와 동구에서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 학생운동에서 그 발생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민권과 전쟁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난 1964년의 버클리 학생운동, 1967년 서베를린 시위, 1968년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의 학생저항운동, 1968년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학생운동들이 일어난 후, 시민사회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운동들이 나타났다. 조대엽, 김철규, 『한국 시민운동의 구조와 동학』, (과주: 집문당, 2007), 28.

후, 제도정치에 철저한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좌익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설 자리가 없었으며 1960년대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정권의 개발독재는 시민사회와 시장의 자율성을 억압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사회운동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1960년대 전반에 걸쳐 국가권력은 권위주의를 앞세워 억압과 성장우선주의적 정치, 경제제도를 실행했다. 여기에서 배태된 대중의 불만은 1970년대 유신헌법 반대를 필두로 1980년대로 확대되는 민주화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이 당시의 민주화운동은 정치권력의 민주화와 한국자본주의의 경제적 모순에 집중되었다.

민주화운동에서 정치권력과 경제적 모순에서 소외당한 '민중'으로 지칭되는 피지배계급의 계급이 이슈화되어 강조되었다면, 1987년 6월 항쟁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계급을 벗어난 탈계급적 시민운동으로 변환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사회운동을 이른바 '민중의 영역'에서 '시민의 영역'으로 바꾸어 놓은 단체는 1989년에 발족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 볼 수 있다. 이 단체가 등장한 이후 1990년대 1993년 환경운동연합, 1994년 참여연대의 출범은 한국에서 시민운동의 가속력을 부추기는 계기였다.⁶⁶⁾

우리는 여기에서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활발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전개된 사회운동이 민주화운동이라면 시민운동은 1990년대 이후 사회운동의 새로운 흐름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90년대의 시민운동은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사회운동의 특징인 일시적이면서도 격렬한 투쟁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내에서 제도화되거나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사회운동은 전체사회로 그 영역을 넓히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진

66) 이와 같은 견해로 위의 책, 79.

시민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시민들의 권익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급속히 확장되었다.⁶⁷⁾

이런 의미에서 조대엽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사회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1990년의 사회운동을 ‘시민운동’으로 규정한다.⁶⁸⁾ 또한 시민운동의 범주와 연관할 때, 우리사회는 ‘시민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이는 시민운동이 단순한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적 시민을 넘어선 시민사회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운동양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사회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말할 수 있는 사회운동을 시민운동으로 규정되어서 글이 전개될 것이다.

2. 한국 시민운동의 제도화와 탈제도화 현상

1987년 이후 한국 시민운동의 목표는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시민운동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면서 ‘관료화’되거나, 시민운동이 주도하면서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운동이 행하였던 다양한 운동들의 형태는 온건해지고 일상화되면서 정치과정의 일부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한국 시민운동의 주체들은 시민운동이 제도화되어 하나의 정치세력이 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선택한 하나의 전략이 이른바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이었기 때문이다.⁶⁹⁾

그럼에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의 시민운동이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이 두 정부 기간 동안 시민운동이 내세운 상당수의 의제들이 제도

67) 이는 “시민의 힘”, “NGO의 시대”, “제3섹터”, “제5권력” 등의 용어를 빌려 표현되고 있다. 위의 책, 50.

68) 조대엽, 『한국의 시민운동-저항과 참여의 동학』, 앞의 책, 116.

69) 홍일표, 『이중의 탈제도화』 압력과 한국 시민운동의 대응 - 참여연대의 ‘소통적 제도화’ 전략 검토, 『기억과 전망』, 21호, 76.

적 장치에 의해서 의제가 되고 사회적 합의로 도출되었다. 시민운동의 의제들은 이제 “일상화되고, 주변화”되었다.⁷⁰⁾ 참여정부 시절, 국가와 시민사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11개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들과 530여개의 각종 정부 위원회들이 설치되었다. 이들 위원회들의 상당수가 시민운동의 인사들이었다.⁷¹⁾ 또한 시민운동이 제도화되어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위원회들은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일 것이다. 이렇듯 참여정부 시절 시민운동이 제도화되면서 이른바 ‘지나친 제도화’를 우려하기도 했다.⁷²⁾

참여정부 때, 시민운동이 제도화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어 각각의 독립성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또한 11개의 대통령 직속자문위원회는 폐지되었고 정부 위원회들 중 270여 개의 위원회가 아울러 폐지되었다.⁷³⁾ 대신에, ‘뉴라이트’를 필두로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이 재조직화되면서 ‘보수주의 시민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⁷⁴⁾ 이렇게 볼 때, 이른바 ‘위로부터의 탈제도화’가 일어나고 있다.

위로부터의 탈제도화의 압력이 나타나면서 ‘아래로부터의 탈제도화의 압력’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촛불시위다. 특히 2008년의 촛불시위다. 촛불시위는 2002년 주한 미군 장갑차량 사고로 죽은 두 여중생 효순과 미순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시위, 2003년 부안 핵 폐기장 반대 촛불시위, 2004년 탄핵반대를 위한 촛불시위, 2006년 새만금개발 반대 촛불시위, 2007년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반대 촛불시위 그리고 2008년 미국산 쇠고

70) 위의 글, 89.

71) 위의 글, 84.

72) 위의 글, 77.

73) 위의 글, 84.

74) 김상곤, 「2008촛불항쟁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이후의 대안적 운동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9 통권 15호, 213.

기 수입에 대한 반대를 외치며 100여일 동안 수백만의 참여 인원에 이르는 촛불시위로 이어져 왔다. 이제 촛불시위는 한국의 시위 중 한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04년 탄핵반대 촛불시위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인구에 회자되었다.

이런 촛불시위는 시민운동의 제도화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위협일 수 있지만, 자율성의 회복의 측면에서는 전환의 기회일 수도 있다.⁷⁵⁾ 또한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절감하고 참여민주주의의 수요의 폭발적 증대라고 볼 수도 있다.⁷⁶⁾

3. 탈제도화 현상으로서 2008년 촛불시위

2008년의 촛불시위는 처음 10대들에 의해서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수호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항의로부터 발화되어 점차 계층과 세대가 확장되면서 민생문제에 대한 저항의 주제로 접근하였다. 2008년의 촛불시위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제도정치에 커다란 도전을 주었으며 동시에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엄청난 도전이었다. 촛불시위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해주는 조직을 찾지도 않았다. 오히려 시민들 스스로가 새로운 운동을 창출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10대 여중고생들에 의해서 발화된 촛불은 이윽고 참여 계층이 주부들까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든다. 과거의 촛불이 대학생과 당시 386세대를 중심으로 모인 진보세력인 점을 고려하면 2008년의 참여 계층은 색다른 경향이였다.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촛불시위의 참여자들은 사회의 “탈중심적 특성”⁷⁷⁾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참여자들은 조직적

75) 홍일표, 앞의 글, 78.

76) 박재창,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박재창 엮음, 앞의 책, 58.

77) 윤성이, 「2008년 촛불과 정치참여의 특성의 변화: 행위자, 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7집 1호, 316.

이거나 특정 정치세력의 주도하에 동원되지 않고 개인 단위의 자발적 참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2008년 촛불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촛불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당시 시민운동은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힘을 국민의 집단적 힘으로 집산시킬 수 있는 사회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⁷⁸⁾

2008년 촛불시위는 네트워크 사회와 온라인 사회에서 배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유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양한 회원들과 연계하고 조직화하며, 사이버 세계에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참여자들을 유기적으로 동원한다. 이들은 무선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단이었다.⁷⁹⁾

이런 방식의 시민참여는 기존의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비정치적 집단의 정치참여의 일상화를 가능케 한다.⁸⁰⁾ 네트워크사회나 온라인 사회에서의 이런 시민참여의 방식은 비제도적 참여로 전환되

78) 홍일표, 앞의 글, 89.

79) 자발적 참여자들은 대부분 비정치적인 온라인(on-line) 공동체들이었다. 당시 자발적 참여에 적극 동참했던 비정치적 온라인 공동체들은, '82Cook', 'MLB Park', '엽혹진' 등이다. 우선 '82Cook'(http://www.82cook.com)은 대다수 회원이 30-40대 주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식수를 배달하거나 김밥제공,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활동을 했다. 'MLB Park'(http://www.mlbpark.com)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인데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를 교환하다가 촛불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모금운동을 통해서 신문에 광고까지 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엽혹진'(http://cafe.daum.net/truepicture)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하나의 카페로 주로 연예인의 과거사진, 엽기, 유머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였다. 이들은 촛불시위 현장지원 모금을 마련하고 식수와 김밥 등의 먹을거리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다. 윤성이, 앞의 글, 320-321.

80) 위의 글, 328.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2008년의 촛불시위는 기존의 제도화된 시민운동에서처럼 입법청원, 소송제기, 논평과 성명서 등의 발표하는 운동의 방식을 벗어났다. 촛불시위는 다양한 문화축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문화공연을 중심으로 광장의 문화를 즐기는 모습과 더불어 가족들, 직장동료, 학교동문, 아파트 주민 모임, 연인들 까지도 함께 모여 축제를 벌인 “평화적인 광장 축제문화의 전형”⁸¹⁾이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볼 때, 2008년 촛불시위는 비제도권 또는 탈제도권적 시민운동으로 볼 수 있다. 촛불시위의 참여자와 시민운동의 참여자들은 같은 길을 각자의 방법대로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⁸²⁾ 그러나 촛불시위 이후 시민운동은 광우병대책국민회의 이후의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면서⁸³⁾ 제도정치적 길을 모색하고 있다. 2008년의 촛불시위는 네트워크 시대에 새로운 정치참여의 제도인 연결과 소통의 제도가 절실함을 보여준 일련의 시민운동으로 볼 수 있다.⁸⁴⁾

IV. 공공신학으로 한국 시민운동 읽기

스택하우스와 하우어워스의 공공신학을 고려할 때, 공공신학은 교회 안에서 교회됨을 추구하고(하우어워스) 교회 밖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윤리적 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

81) 강병오, 「촛불집회, 민주주의 그리고 기독교윤리」,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한국기독교윤리학논총』, 제11집, 16.

82) 홍일표, 앞의 글, 91.

83) 이후 전개된 시민운동은 ‘민생민주국민회’,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희망과 대안’ 등과 같은 단체들이었다. 위의 글.

84) 윤성이, 앞의 글, 331.

는 것(스택하우스)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시민운동과 연대하여 시민 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은 공공신학의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아울러 한국 시민운동이 오늘의 개신교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교회 자체에서의 평화운동을 통한 교회됨의 윤리가 된다면(하우어워스) 시민운동의 질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택하우스와 하우어워스의 공공신학은 교회가 시민운동에 참여 또는 자세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후버가 제시한 시민사회와의 중재자로서 교회를 고려한다면, 교회는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한국 시민운동과 적극적인 실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권력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을 경우 교회는 시정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사회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다.

책임사회 구상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회의 구성원은 책임질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 앞에서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 또한 책임사회 속에서 구성원은 자기실현을 위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구성원은 법질서와 정부를 조절하고 비판하고 바꿀 수 있는 자유를 발휘하면 된다.

이렇게 볼 때, 공공신학은 교회가 시민운동과 연관되어 적극적 활동하는 것이 교회의 윤리적 행동 중 하나임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2008년 촛불시위는 정당하다. 다양한 한국 시민운동 중 2008년의 촛불시위는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위였다. 촛불시위는 제도화된 시민운동의 반성을 촉구했으며, 시민운동을 제도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탈제도화 정책의 정부에 대한 제도권 밖에서의 시민운동이었다.

다만 보다 더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해서는 탈제도화된 시민운동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제도화된 시민운동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제도화된 시민운동이 보다 만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책임사회 구상이 교회와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궁극이전의 기준으로 설정된다면, 책임사회 구상에 준하는 제도 속에서 실현가능한 준칙설정이 중요하다. 2008년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당시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와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제도화된 시민운동을 전개시켜 하나의 준칙을 설정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와의 중재자로서 한국 교회가 한국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독일의 개신교와 같이 백서⁸⁵⁾를 발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에큐메니칼 운동이 제시하는 사회윤리적 측면의 입장을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백서나 에큐메니칼 운동에서의 합의된 입장이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는가의 문제는 남아있다. 하지만 최소한 백서를 제작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는 교단부터 교회됨을 숙지하고 시민사회 속에서 교회가 감당할 윤리적 과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면, 구속력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와 시민운동은 보다 나은 한국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준칙을 설정하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고 본다.

85) 독일 개신교의 경우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서 그 때 그 때마다 백서(Denkschrift)를 발간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내어 놓는다. 사회문제에 대한 성서적 근거와 신학적 근거가 필두에 나오며, 사회문제의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대안 내지는 성명서를 내놓는 것이 독일 개신교 백서의 특징이다. 이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각 사회분야의 신학자들, 목사들 그리고 사회의 유명인사들 내지는 다른 학문의 학자들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분과에서 협의하고 합의를 통해서 백서를 준비한다. 이 백서들은 가톨릭의 경우처럼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들만의 유희적인 문서도 아니다. 이 백서들은 의무는 아니지만 일종의 지침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백서들은 또한 독일 개신교의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신중한 절차와 작업이 필요하다.

V. 나가는 말

본 논문은 공공신학의 입장을 교회론에 입각해서 스택하우스와 하우스어 위스로 대표되는 미국의 공공신학을, 독일의 공공신학을 대신해서 후버의 공공성을, 한국의 다양한 학자들의 공공신학을 정리하였다. 게다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의 사회윤리적으로 중요한 책임사회 구상도 공공신학의 견지에서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신학의 입장에서 교회는 시민사회와의 중재자로서 시민운동과 연대하는 데 노력해야하며, 이는 오늘의 한국 교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특히 교회와 시민운동은 하나의 준칙이 될 만한 모델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교회적 차원에서 백서의 제안을,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제도화된 시민운동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병오. 『촛불집회, 민주주의 그리고 기독교윤리』.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한국기독교윤리학논총』. 제11집.
- 고덕신. 『유럽의 공공신학』.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한국기독교윤리학논총』 제10집.
- 구미정. 『여성신학에서 본 공공신학의 과제』.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한국기독교윤리학논총』 제10집.
- 김경동. 『시민사회와 정치과정』. 박재창 엮음. 『위기의 한국시민사회』. 서울: 아르케, 2009.
- 김상곤. 『2008촛불항쟁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이후의 대안적 운동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15호.
- 김현수.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 비판적 읽기』.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1집.
- 김형민. 『공공신학의 과제로서 인권』. 세세대 교회윤리연구소.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 노영상.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에 대한 논구』, 세세대 연구소,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 노영상. 『공공신학의 신학적 의의와 윤리적 과제』.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한국기독교윤리학논총』 제10집.
- 문시영.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담긴 윤리적 통찰』, 세세대 연구소,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 문시영.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 개념과 사회윤리적 특성』.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한국기독교윤리학논총』 제10집.
- 문시영. 『S.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
- 문시영. 『하우어워스의 윤리에서 복음과 교회』. 한국기독교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21집.
- 문시영.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비추어본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 한국기독교교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79집.
- 문시영. 『하우어워스와 ‘덕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3집.
- 박재창.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박재창 엮음. 『위기의 한국시민사회』. 서울: 아르

- 케 2009.
- 성석환. 「공공신학의 문화적 실천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77집.
- 손규태. 『하나님 나라와 공공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윤성이. 「2008년 촛불과 정치참여의 특성의 변화: 행위자, 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7집 1호.
- 이형기 엮음. 『세계교회협의회 역대총회 종합보고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임성빈. 「맥스 스타크하우스의 신학윤리사상과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 조대엽. 『한국의 시민운동-저항과 참여의 동학』. 서울: 나남출판, 1999.
- 조대엽·김철규. 『한국 시민운동의 구조와 동학』. 파주: 집문당, 2007.
- 홍일표. 「이중의 탈제도화 압력과 한국 시민운동의 대응: 참여연대의 ‘소통적 제도화’ 전략 검토」. 『기억과 전망』 21호.
- Huber, W. *Öffentlichkeit und Kirche*, Honecker, M. (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2001).
- Jähnichen, T. *Vom Industrieuntertan zum Industriebürger, Der soziale Protestantismus und die Entwicklung der Mitbestimmung (1848-1955)*, (Bochum: 1993).
- Kosmahl, H.-J. *Ethik in Ökumene und Kirche: Das Problem der ‘Mittleren Axiome’ bei J. H. Oldham und der christlichen Sozialethik*, (Göttingen, 1970).
- Visser't Hooft, W. A. *Die erste Vollversammlung des Oekumenischen Rates der Kirche: Die Unordnung der Welt und Gottes Heilsplan*, Bd. 5, (Genf, 1948).
- Visser't Hooft, W. A. *Oldham's Method in Abrecht's Hand*, the ecumenical review, N. 1/1985, Vol. 37.
- Wendland, H.-D. *Die Kirche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Entscheidungsfrage für kirchliche Handeln im Zeitalter der Massenwelt*, (Hamburg, 1958).
- Wendland, H.-D. *Die Kirche in der revolutionären Gesellschaft*, (Gütersloh, 1967).

논문투고일: 2012. 10. 31

심사개시일: 2012. 11. 27

게재확정일: 2012. 12. 19

 • 국 문 초 록 •

최근에 공공신학이 한국 신학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신학주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이 배경에는 2012년에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 등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가별 선거가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시민운동도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정치적 이슈들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연구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미국(스택하우스와 하우스 어워스), 독일(후버) 그리고 한국의 공공신학의 입장에서 관련된 정치적 이슈들을 분석하고 있다. 또, 에큐메니칼 운동을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임사회 구상도 공공신학의 견지에서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에는 시민단체의 제도화가 이뤄졌지만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급격하게 시민단체의 탈제도화가 이뤄졌다. 한국 시민운동의 발전과정을 고려할 때, 2008년에 이뤄진 촛불운동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위로부터 탈제도화되고 있고 그 예로 촛불 시위를 꼽을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이런 탈제도화 되는 한국 시민운동을 공공신학의 눈으로 보면서 다시금 제도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공신학은 교회가 시민운동과 연관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교회의 윤리적 행동 중 하나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더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해서 탈제도화된 시민운동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제도화된 시민운동이 활발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 시민사회와의 중재자로서 한국 교회는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독일의 개신교와 같이 백서를 발간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공공신학 교회, 시민운동 제도화, 정치적 이슈
